

崔時仲 경주최씨 중앙종친회장 인사말

미력이나마 맨 뒷줄에 서서 심부름 하겠다



동근이지(同根異枝)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뿌리에 다른 가지라는 뜻이지요.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종친(宗親)을 흔히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종친은 한 분의 시조(始祖)에서 갈라진 수많은 다른 가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으로 정겨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운(孤雲) 시조 할아버님을 뿌리로 해서 비롯된 우리 경최(慶崔=慶州崔氏)는 천 백여년이 지난 현대에 이르러 인구 2백여 만명을 헤아리는 가지로 뻗어 나갔으니 정말 놀라운 번영(繁榮)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여년의 파란(波瀾) 많은 세월동안 용케도 가지에서 가지로 생명을 일구고 생명을 전달하는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 해 왔으니 조상(祖上)에 대한 애뜻한 애정과 경의(敬意)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정기총회에서 중앙종친회 회장을 다시 맡게 되었으니 당연히 영광스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무(責務)를 느낍니다. 다행히 이번에 시조할아버님께서 우리 국학(國學)이 열리는 역사의 새벽에 남기신 그 위대(偉大)한 발자취를 따라 학술적 연구도 수행하고 사상적(思想的) 전착(穿鑿)도 심도(深度)있게 구명(究明)할 목적을 띤 '고운국제교류사업회(孤雲國際交流事業會)'를 설립하고 사단법인(社團法人)으로 등록을 마쳤으니 이제 큰일 하나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긴장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뜻있는 전국의 종친 여러분과 학계(學界)의 대덕(大德) 석학(碩學)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도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맨 뒷줄에 서서 심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종친 여러분의 건승(健勝)하심과 가정에 늘 행운(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崔根德 고운국제교류사업회이사장 인사말

앞으로 豊盛한 成果가 있을 것



한국학(韓國學)이라 일컫는 그 문(門)을 열고 첫길을 닦은 분이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장(文章)과 학문(學問)으로 조선시대 10대가(大家)의 한분으로 꼽는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도 고운의 저서(著書)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교인(校印) 서문(序文)에서 '우리 동방(東方)에 문장(文章)이 있게 하고 능히 책을 저술해 후세에 전한 분은 고운 최공(崔公)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동방의 선비로 북

(北)으로 중국에 가서 배워 글로서 천하에 소리친 분은 역시 최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최공의 저서로 후세에 전하는 것은 오직 <계원필경(桂苑筆耕)>과 <중산복계집(中山覆椽集)> 두 부(部)뿐인데 이 두 저서 또한 우리 동방 문장의 뿌리이고 시작이다' 라고 명쾌하게 단언하고 있다. 사실 9세기의 신라 학술계(學術界)는 경주(慶州) 최씨(崔氏) 독무대(獨舞臺)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세칭(世稱) 삼최(三崔)라 해서 선생을 위시해서 최승우(崔承祐) 최언위(崔彦偉)등 최씨 수재(秀才)들이 어린 나이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당시 세계제국(世界帝國)인 당(唐)에 유학해 최고학부(最高學府)이자 국립대학인 국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고는 과거(科擧)에 당당히 급제했고, 문명(文名)을 떨치다가 조국 신라로 귀국해 학술계를 이끌었던 것이다. 이번에 고운국제교류사업회(孤雲國際交流事業會)가 출범한 것은 의욕만은 활발발(活潑潑)하다. 법인(法人) 이사(理事) 여러분이 크게 고무(鼓舞)되어 있다. 중앙종친회 염(炎) 명예회장께서 법인(法人)의 상임이사(常任理事)를 흔연히 맡아 주셨고, 시중(時中)회장께서 운영이사회 회장을 맡아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학술연구위원회와 국제교류위원회가 있어 사계의 석학대덕이 학술연구와 국제교류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으니 풍성한 성과가 있게 될 것이다.

孤雲 기념사업과 기금확보 위해 誠力다할 것 (社)孤雲國際交流事業會 정기총회 개최

예결산안 통과, 신임 이사와 감사 선임 고운주제 학술대회, 名詩研墨展 일정 확정



▷총회 후 기념사진.

사단법인 고운국제교류사업회(이하 고운사업회)는 지난 6월9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보고에 이어 2009년도 결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총회는 문창후 고운 시조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막을 올려 2009년도 사업진행 및 결산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 공개

및 예산안 통과, 정관 일부개정, 이사 및 감사선임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2010년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孤雲叢書 2집과 3집 발간 ▶중국 揚州에서 孤雲기념행사 거행 ▶CMS 후원신청 확대방안 모색 ▶법인기금 및 고운회관건립자금 조성 위해 노력 ▶慶崔

名賢文集翻譯(傳記포함) 간행 추진 ▶韓中書藝家 孤雲名詩硯墨展, 한중일 孤雲思想國際學術大會 등 韓中文化交流行事 개최 ▶孤雲會報 및 달력발간. 고운총서 2집은 지난 4월에 이미 발간됐고 3집은 현재 편찬 작업 중이다. 孤雲기념행사는 오는 10월15일 중국 揚州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80명 정도가 참

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운사업회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CMS 후원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종친들에게 학술과 문화 홍보에 주력하는 단체임을 인식시킬 계획이다. CMS 후원은 연말 소득공제에도 해당이 된다. 법인기금 및 고운회관건립자금 조성은 경주최씨 종친들이 운영하는 기업체 설득을 통해 진행되며 기금은 주로 고운회관 건립을 위해 사용된다. 한중서예가 고운명시연묵전은 오는 10월경에 개최를 예정으로 추진되며 한국에서 30명, 중국에서 3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덕 이사장은 종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운사상국제학술대회는 2011년 5월경 북경에서 개최를 예정으로 최영진 성균관대교수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 3명, 중국에서 3명, 일본에서 2명의 학자가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개정 및 이사 및 감사선임도 이루어졌다. 정관 일부 개정은 이사의 증원, 총회소집 통지방안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사는 기존의 15명에서 25명 이내로 대폭 증원됐으며 총회소집 통지는 문서통지에서 이메일, 전

화 등 다채로운 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신임이사는 최염(경주최씨중앙종친회 명예회장), 최효종(주청진실업 대표), 최영철(주백산산업 대표), 최성해(동양대학교 총장), 최영건(경주최씨중앙종친회 부회장), 최병도(전 국회전문위원), 최동전(푸른한국 상임고문), 최광규(주경원엔지니어링 대표), 최창식(주금성전기 대표), 최우진(진등산업 대표), 최동규(CU그룹 대표)이며 신임감사는 최병운(C8S세무법인 대표)이다. 올해 사업계획 공개에 앞서 고운사업회는 2009년 5월30일에 개최됐던 1차 이사회와 동년 9월19일에 열렸던 2차 이사회, 2010년 1월의 3차 이사회, 동년 5월의 4차 이사회 및 5월말 5차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통해 2009년 10월15일 중국양주에서 모셨던 고운 시조 추계 행사, 최씨 중앙종친회 홈페이지 제작완료,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승인 과정, CMS 실시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2009년 10월29일에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열렸던 고운 최치원 연구총서 제1집 출판기념회 및 학술발표회 경과보고도 있었다. 한편 이날 최근덕 이사장은 "최고운이 한중 관계의 선구자이자 우리 국학의 문을 연 인물임은 누구도 부정 못한다. 고운 국제교류사업회의 발전은 경주 최씨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큰 이익이다. 열심히 일하자"고 강조했다.

경주최씨의 노블리스오블리제를 드라마로

KBS 1TV 16부작 사극 '명가' 올 초 방영



▷명가 드라마에 발표회에 참가한 주연배우들. 차인표(左)씨가 주인공인 최국선 선현역을 맡았다.

오랫만에 보는 名品 드라마 호평 일색

2010년 백두 KBS를 통해 경주 최씨 문중의 노블리스오블리제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됐다. 지난 1월2일 오후 9시40분 첫 방송된 KBS 1TV 16부작 대하사극 '명가'는 13대 300여년간 부를 유지해 온 한국 대표적 명문 경주 최씨 일가의 이야기를 다룬 대하사극으로 이탈리아 메디치가(家) 못지않은 경주 최부자가문을 통해 정당한 부의 축적과 도덕적 행사 과정을 보여주었다.

오랫만에 브라운관에 등장한 차인표는 최국선 역을 맡아 연

기했고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에서 상단으로 거듭나는 한단이 역은 한고은, 우여곡절 끝에 포도청 종사관이 되지만 신분상승의 한계를 느끼는 최국선의 라이벌 김원일 역은 김성민이 연기했다. 명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민에게 배운 제대로 된 부자' 경주 최씨 일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오늘날 상생의 철학을 제시했다.

방영에 앞서 이강현 EP는 "그 동안 사극은 왕조나 널리 알려진 인물 중심으로 다뤘지만, 명

가는 알려지진 않았어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 최씨 부자의 명가를 소재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사극"이라고 자신있게 명가를 소개했다. 드라마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오늘날 되살려야 할 보편적 윤리와 도덕성을 환기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 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방송 당시 '명가'는 시청자들로부터 '기성배우들과 아역 연기자들의 뛰어난 연기, 촌철살인 명대사, 그리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담아, 보는 내내 얻을 게 참 많은 명품 드라마'라는 평을 받았다.

孤雲 始祖 메달 제작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등의 분야에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역사인물을 매월 2명 선정. 발행하는 연속 사업 중의 하나로 「한국의 인물 100인 시리즈 메달」을 2008년 2월부터 50개월 동안 진행 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말경 경주최씨의 시조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메달 제작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이에 경주최씨중앙종친회에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운 시조님의 영정으로 제작해 7월말에 완료 출시할 예정입니다.

경주최씨중앙종친회와 고운국제교류사업회에서 일괄 주문을 받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할 예정이오니 주문을 원하시는 종친회원분께서는 경주최씨중앙종친회 또는 고운국제 교류사업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뒷면

- 전 화 : 02-732-8118, 02-738-3477
- 가 격 : 개당 25,000원
- 송금은행 : 농협중앙회
- 송금계좌 : 032-12-212170
- 예 금 주 : 최영건

10월 15일 중국 양주시

고운최치원 기념관 제향 행사

중국 양주시 고운 최치원 기념관에서 열리는 제향행사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합니다. 10주년 행사에 맞춰 고운 명시 연묵전 및 학술 강연도 함께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일시: 2010년 10월 14일부터 10월19일 (5박6일)
장소: 중국 양주 고운 최치원 기념관 등 고운시조 유적지

경주 최씨의 맛 황남빵, 3대에 걸친 匠人의 작품



경주를 대표하는 황남빵에는 3대에 걸친 경주 최씨의 땀이 배어있다. 황남빵은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39년 최영화 종친에 의해 경주시 황남동 30번지에서 처음 만들어 졌다.

최영화 종친은 司成公(諱: 沍) 9世孫으로 八友亭의 팔형제중 셋째인 國欽의 8代孫이다. 화남빵은 현재는 최영화 종친의 차남인 최상은 종친이 선친의 비법을 전수

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아들과 함께 3대에 걸쳐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영화 종친이 1939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황남빵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며 명맥을 유지하다, 1955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경주의 보물로 자리 매김을 시작했다. 1998년 7월 현재의 위치인 경주시 황오동 347-1번지에 본매장을 개점하였고 경주시로부터 '경주시 특산물'로 지정받았다. 1999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식품으로는 유일하게 '경상북도명품 제2호'로 지정 받아 특산물로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입소문을 타고 국내 방송3사, 지방방송사, 해외방송사, 주요 신문사, 일간지, 월간지등에 경주의 특산물로 한국의 맛으로 가업을 잇는 전통 있는 식품으로 여러 차례 소개되며 지금의 명성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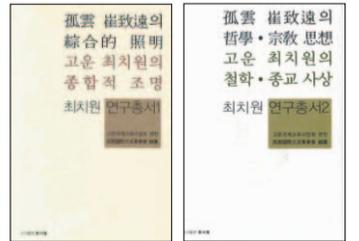
2대째인 최상은 대표의 뜻과 가업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황남빵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 맛과 멋, 그리고 전통을 지키려는 황남빵은 체인점이 없으며, 전 공정을 수작업으로 빚어내는 장인정신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황남빵의 비밀은 반죽의 농도에 있는데 손저울을 사용하고 물과 밀가루의 비율을 엄격히 지켜 알맞은 반죽을 하여 팔소를 넣은 둥글납작한 반죽덩어리 위에 빗살무늬 도장을 꼭 눌러 찍어 떼어 낸다.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가 전혀 안 들어가 부드럽고 고풍스러운 맛이 난다. 하루에 1만개의 빵을 내는데 1개에 500원 꼴이다. 요즘도 이 빵을 먹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할 정도이다.

도서안내

경주 최씨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최치원 연구총서 1집, 2집〉
도서출판 문사철 간/ 각 권당 30,000원



고운국제교류사업회가 발간한 최치원 연구총서 1집과 2집은 경주최씨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고운 시조는 어린 나이에 당에 유학하여 유·불·선이 병립(並立)하였던 당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그 사상을 체득하였던 인물이다. 후세인들이 그를 동국유종(東國儒宗)의 시조로 보고 문묘에 배향하고 있는가 하면, 또한 그의 문집에 불교를 찬양하는 글을 많이 남기고 있으며, 혹은 한국선가의 비조로 다루고 있는 풍토에서 최치원 사상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1집인 〈고운 최치원의 종합적 조명〉은 최치원 연구에 대한 종합적 개괄서로서 독자들에게 최치원에 대한 정확하고도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고 있다.

2집인 〈고운 최치원의 철학 종교 사상〉은 3부로 나뉘어져 제1부는 최치원선생 철학·종교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풍류정신과 동인외식에 관한 연구이다. 2부는 최치원선생 삼교사상의 전체를 개괄하고 후 유교사상·불교사상·도교사상 각각에 관한 논문으로 편찬되었다. 제3부는 최치원선생의 종교관과 수운 최재우에게 미친 영향을 고찰하여 한국종교사상사에서 고운 시조가 차지하는 위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집-慶州崔氏 대표하는 중앙종친회와 고운국제교류사업회

慶州崔氏 一族의 모임 中央宗親會

悠久한 전통이어 和合속에 自強不息

경주최씨 중앙종친회(이하 중앙종친회)가 半世紀의 역사를 가진 전국 경주최씨종친들의 마음 속 보금자리라면 고운국제교류사업회는 역사는 짧지만 고운의 사상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내는 경주최씨들의 선봉이다. 청년을 넘어 중년에 들어선 중앙종친회와 고운국제교류사업회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최시중 현 중앙종친회 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중앙종친회는 1957년 4월16일 경주시 인왕동 위치한 상서장에서 열린 향사에서 종친회 창립을 결의하고 동년 10월19일 서울 신광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공식출범했다. 반세기의 역사동안 중앙종친회장을 역임한 인사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초대회장인 최용광 종친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주중대사를 지낸 군의 원로이다. 1957년부터 1958년까지 1년 동안 종친회장에 재임하다 최하영 종친에게

자리를 넘겼다. 최하영 종친은 심계원장 즉 현재의 감사원장을 지낸 인물로 1960년까지 회장직을 유지했다. 그는 1962년부터 64년까지 6대 회장을 다시 지내기도 했다. 3대(1960~1961) 회장은 경영인으로 조양사를 운영하는 최성원 종친, 4대(1961~1962) 회장은 역시 경영인인 최건우 종친이 지냈다. 5대(1962~1964) 회장인 서울 신광학원 이사장으로 교육계 인사였던 최영희 종친이 역임했다.

정치인과 행정 관료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도 했다. 국회의원이던 최두고 종친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7대와 8대, 9대 회장을 3번이나 연이어 맡았다. 10대 회장은 서울 종로구청장을 지낸 최익명 종친이었다. 환경부장관과 국회의원을 재선했던 최재욱 종친은 18대 회장을 지냈다. 유명 정치인으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 좌형우라고 불리며 국회의원과 내무장관을 지냈던 최형우 종친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16대 종친회장을 지냈다.

경주최부자집의 방손으로 대구대학 재단이사장을 지낸 최염 종친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12대에서 15대까지 회장을 지냈다. 17대 회장(1998~1999)은 독립유공자인 최해수 종친, 19대(2003~2006) 회장은 최종규 한국명륜회장, 20대는 최현우(2006~2007) 동양대학교 이사장이었다. 현재 종친회장은 언론계의 원로인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고운국제교류사업회운영위원회 회장이기도 하다.

선조추모사업 및 장학사업 펼쳐

중앙종친회는 문창후 고운 시조(文昌侯 孤雲 始祖) 후예로서 각 27개 파보에 입보된 종원과 종회 취지와 목적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는 종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규모에 걸맞게 선조(先祖)의 유적(遺蹟), 유물(遺物)의 보존 발굴과 그 관리사업, 선조의 추모사업(追慕行事) 및 연구사업, 선조의 전기 간행과 홍보사업(弘報事業), 대동보(大同譜) 간행사업, 종보 발간사업, 종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교육사업 및 예절교육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종친회는 각파 종원들의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각 단위 소종회에서 전기, 종보, 파보 등을 간행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중복여부를 승인받고 본부 종회에 비치용으로 한질씩 납본하게 하고 있다. 각 단위 소종회나 개인 자격으로 중앙종친회 명의를 빙자해서 대동보와 유적(遺蹟) 기타 간행물 발간하고 판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大姓에 맞게 대규모 조직 운용

중앙종친회는 회장인 최시중 종친을 비롯해 고문 8명, 명예회장 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44명의 부회장단, 25명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수석부회장은 최동규 종친이다.

다음은 부회장단 명단이다. 최철수(崔鐵洙), 최종돈(崔鍾敦), 최태균(崔泰均), 최재현(崔在現), 최임섭(崔任燮), 최두진(崔杜鎭), 최양기(崔洋棋), 최수경(崔壽慶), 최천희(崔千熙), 최원수(崔源樹), 최채량(崔採亮), 최남수(崔南壽), 최현재(崔鉉在), 최상기(崔相基), 최대수(崔大洙), 최경호(崔敬鎬), 최효석(崔孝錫), 최영도(崔榮道), 최현달(崔顯達), 최시호(崔時昊), 최일주(崔日柱), 최등규(崔登奎), 최광규(崔光圭), 최규식(崔奎植), 최수열(崔壽烈), 최창혁(崔彰赫), 최영철(崔泳哲), 최병주(崔炳柱), 최성해(崔成海), 최창식(崔昌植), 최영병(崔泳炳), 최재병(崔載柄), 최도열(崔道烈), 최우진(崔佑鎭), 최수정(崔秀晶), 최종하(崔鍾夏), 최봉수(崔奉洙), 최용주(崔鏞柱), 최재광(崔在光), 최학열(崔學烈), 최해일(崔海一), 최병동(崔炳東), 최훈식(崔薰植), 최병수(崔炳秀).

孤雲國際交流事業會出帆, 그리고 1年

단기간 많은 성과 이뤄

고운국제교류사업회(孤雲國際交流事業會, 이하 고운사업회)는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선생(先生)의 국내(國內)와

중국(中國) 등에서 활동한 훌륭한 학문적(學問的) 업적(業績)과 유적(遺蹟)등의 발자취를 찾아 더욱 발전(發展)시키고, 이를 국내(國內) 및 해외(海外)에 소개(紹介)함은 물론, 한중(韓中)간 상호교류(相互交流)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유문

화(固有文化)의 발전(發展)에 기여(寄與)하고 국위를 선양(宣揚)함을 목적(目的)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설립연도는 짧지만 단기간에 많은 일을 해내고 추진하고 있다.

발족과 동시에 중국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옛 신라의 수도인 경주 등 고운 유적지를 순례시키고 한국의 역사를 교육시킴으로써, 중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옛 문화 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로 중국유학생 유적지 순례를 실시했다. 고운사업회는 이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운사업회 산하 학술위원회와 중국의 유관단체 합동으로 중국에서 고운 최치원선생 추모 국제 학술대회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 북경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고운문집>을 발굴하고 또 이를 현대화하여 외국어로도 번역을 한 후 국내는 물론 해외로 보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고운사업회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신비명>과 <계원필경 20권>을 게재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사신비명내용보기>에 들어가면 <천부경> <난랑비서문> <격황소서> <사신비명>을 볼 수 있다.

<孤雲叢書> 발간과 학술대회 대표적 사업

<고운총서(孤雲叢書)> 발간은 고운사업회가 야심차게 수행하고 학문적 성과를 얻은 사업이다. 지난해 10월29일에 열렸던 <고운총서(孤雲叢書)> 1집 출판기념회와 학술발표회는 250명이 넘게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는 오석원 성균관대교수의 <고운총서> 출간 경과보고 종친인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기획사, 최근덕 이사장의 간행사, 논문발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당시 최성해 종친은 “현재 우리에게 고운의 사상은 앞으로 인류행보의 유익한 가치와 철학을 제시한다. 고운 사상의 국내확산에 주력하고 국제간 다자간 교류가 필요한 시점에서 총서발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발간된 <고운총서> 2집에는 류승국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최치원의 동인인식’을 비롯한 13편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현재 <고운총서> 발간과 국제학술대회는 성균관대 교수인 최영진 교수가 주관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고운총서 1집> 발간기념회 및 학술대회에 참가한 인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4월 중순 孤雲시조 춘향 일제히 봉행

해운대, 경주 상서장, 합천 학사당, 두곡서원



▷부산해운대 동백섬에서 봉행된 춘향제.

지난 4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 경주 상서장, 합천 학사당, 두곡서원 고운 시조의 열이 서린 곳에서 고운시조의 춘향제가 일제히 봉행됐다.

17일 해운대에서 동백섬 정상 고운 시조 동상 앞 광장에서 봉행된 춘향제에는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헌관은 초헌관에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아헌관에 최현돌 기장군수, 종헌관에 최남수 종친이었다. 이날 집례는 최규식 종친, 대축은 최시호 종친이었다.

지난해 제향에는 배덕광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장이 초헌관을, 최현주 종친이 아헌관을, 송윤복 동래향교 전교가 종헌관을

맡았다. 현재 해운대구는 해운대 뿌리 찾기의 일환으로 고운시조의 지취가 남아있는 중국 강소성 양주시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10일 행사에는 이날 중앙종친회 최시중 회장과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최근덕 이사장은 중앙종친회 최영건 사무총장을 통해 화환을 증정했다. 한편 이날 춘향제 후에 부산종친회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 3선을 하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최현돌 기장군수를 회장에 선출했다.

16일에는 경주시 황오동 상서장에서 춘향제가 봉행됐다. 이날 헌관은 최익용 종친(일본거주, 전 종친회장), 아헌관은 최

종석(대구) 종친, 종헌관은 최상화(경주) 종친이었다.

6일에는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학사당에서 춘향제가 봉행됐다. 한식에 맞추어 치러진 이날 제향에는 종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헌관은 초헌관에 최영건 중앙종친회 사무총장, 아헌관에 최호철 종친, 종헌관에 최요영 종친이었다. 집례는 최원수 종친, 대축은 최병욱 종친이었다.

18일에는 경상남도 마산시 두척동에 두곡서원(원장 정수학)에서 춘향제가 봉행됐다. 두곡서원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고운 시조의 춘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고운국제교류사업회, 학술 및 교류위 발족

고운국제교류사업회(이하 고운사업회)의 학술과 교류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발족되고 위원장 및 위원들이 선정됐다.

학술위원장에는 오석원 성균관대교수가 간사에는 최복희 서강대 교수가 선정됐다. 국제교류위원장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간사에는 정상홍 동양대 교수가 선정됐다. 운영위원장에는 최시중 경주최씨중앙종친회 회장 및 방송통신위원장이 간사에는 최동진 푸른한국 상임고문이 선정됐다.

학술과 국제교류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합동회의를 열고 고운사업회 사무총장에 최수인고운사업회이사를 임명하고 최영고운사업회 상무이사로부터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최영고운사업회 상무이사는 2010년 주요사업으로 ▶고

운총서 2집 및 3집 출간 ▶최씨명현문집 간행 ▶양주시 국제학술대회 ▶고운명시 연륙전 개최 등 업무 등을 보고했다.

이어 ▶연구총서 및 최씨명현문집 간행에 학술위원 및 편집위원 구성 추진 ▶국제학술대회와 명시연륙전 국제교류위원회 추진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합동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회 위원 명단이다.

학술위원: 오석원(성균관대교수), 오종일(전주대교수), 최영진(성균관대교수), 이상호(대구한의대교수), 도민재(청주대교수), 최복희(서강대교수)

교류위원: 최성해(동양대총장), 양승무(간재학회회장), 장병욱(계명대교수), 허유((주)한국비림원이사장), 최병주(세계금선학회회장), 김성기(성균관대교수), 정상홍(동양대교수)

보령시, 창령시, 곤양면, 주포면 종친회 定總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종친회와 충청남도 보령시 종친회, 보령시 주포면 종친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개선을 했다. 지난 4월30일 곤양면에 와티부락에 있는 심상희집에서 열린 곤양 종친회 정기총회에서는 최윤철 회장이 유임됐다. 1월27일 보령시 대천동 한양회관에서 열린 보령종친회 총회에서는 임원선출과 더불어 맥도에서 고운시조 고유제 봉행, 매년 8월초 고운시조 신도비 발초 등의 계획이 결의됐다. 이날 보령총회에는 50여명이 참석했다.

맥도에는 고운 시조가 비문을 짓고 시조의 종제가 썼다는 난

해화상백월보광탑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썼다는 고운시조의 신도비가 남아있다.

3월25일에는 보령시 주포면 석화식당에서 보령시 주포면과 주교면 종친회의 합동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보령시 종친회가 맥도에서 고운시조 고유제 봉행, 매년 8월초 고운시조 신도비 발초 등의 계획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최종돈 중앙종친회 부회장이자 홍성종친회 회장이 참석해 중앙종친회의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1일에는 경상남도 창녕종친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계종 선생 옛터 팔우정 유희비 제막



▷팔우정과 유희비.

지난 3월1일 경주 팔우정 공원에서 팔우정 유희비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현 최양식 경주시장당선자를 비롯한 경주 최씨 종친회 임원들과 김태하 변호사, 김경술 전 경주시 부시장 등 많은 내빈들과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식행사, 유희

비 제막, 고유제, 공로패 시상 순으로 거행되었다.

팔우정은 경주최씨 배반과 선대의 유희지로 조선시대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해 임진왜란에 창의유공하고 서생첩사와 남포현감에 오른 육의당 최계종 선생의 옛터이다.

그는 슬하에 아들 셋을 양육하면서 팔우정 로터리 남서쪽에 정자를 짓고 주위에 과목 여덟 그루를 심었는데 큰 아들인 성훈랑 동노가 슬하에 팔형제를 두었다. 후에 이 과목 여덟 그루가 무성해지면서 팔형제 모두가 정지에서 예의와 학업을 닦아 효우학행(孝友學行)으로 당세에 저명하였으며 정자 이름도 팔우정(八友亭)이라 불렀다.

조선 광해군 6년(1614)에 창건되고 130년 후인 영조 27년(1751)에 후손인 모암공이 중수하여 비석을 세웠다. 140년 후인 대한제국 광무 3년(1899)에 후손 최정수가 개수하였으나 오랜 풍마로 정자는 무너지고 팔우정 비만 남았다가 1960년 경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팔우정 로터리가 축조되면서 비만 로터리의 한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

2009년 12월 문중의 중지를 모아 팔우정 삼거리 북서쪽에 정자를 신축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어 올해 1월21일 팔우정비를 개축하고 이날 제막식을 가진 것이다.

함양, 孤雲시조 祠堂조성추진

경상남도 함양군이 고운 최치원 시조의 사당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함양군은 경주최씨의 시조이자 우리나라 18현 중 한분으로 문묘에 배향된 고운 최치원 선생의 사당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다.

함양군은 최치원 시조의 사당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인 삼림 숲과 고운 시조를 테마로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관광의 문화컨텐츠로 육성해 지역의 관광유입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고운 최치원 시조의 사당을 중심으로 한 주제가 있는 공원조성을 통해 ▶고운 최치원의 업적을 기리는 속에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휴식과 더불어 교육과 체험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양 고운시조 사당 조감도.

지난 6월2일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우리 경주최씨 종친들은 전국에서 자치단체장과 의원으로 출마해 상당수가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종친들 중 대표적인 3명의 프로필과 선거공약 그리고 각오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경주시장 당선자 최양식 종친



모두가 살고 싶은 웰빙시티 건설에 전념

한나라당 후보로 경주시장에 출마해 당선 영광을 얻은 최양식 종친은 1952년생으로 올해 58세다.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리버풀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제2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총무처 인사과장, 국외훈련과장, 청와대민정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소속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제1차관 등 정부의 요

직을 거치면서 명망과 실력을 쌓았다. 경주대학교 총장과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오랜 경력에서 축적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교육현장에서 전하기도 했다.

최양식 종친은 경주시민들에게 창조적 전략으로 경제도약을 이루는 실용적 시장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해 당선됐다. 그는 “국운상승의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경주가 서있어야 합니다”며 “지금 경주는 복잡한 정책문

제를 해결한 다양한 경륜과 전략을 겸비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는 “정부경영의 중심에서 30년 간 쌓아온 경륜과 경험 및 인맥으로 중앙정부와 교섭해 현안을 해결하고 한 발 앞서는 시정을 펼쳐겠다”고 호소해 경주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또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정부 혁신본부장을 지낸 자신의 경력을 강조해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성을 만들어 냈다. 경제도약을 이야기하면서도 문화도시로서 경주의 특성을 강조하는 전략은 당선 의 밑바탕을 이루어 냈다. “경주는 많은 도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도시입니다. 역사문화의 보존과 전시공간인 동시에 27만 시민의 삶의 공간입니다. 문화와 경제는 조화의 문제가 아니라 상생의 문제입니다”라는 그의 비전에 경주시민들은 공감했다. 그는 당선 후 “우리 시민은 과거에 대한 업적보다 미래에 대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 합시다”고 강조했다. 최양식 종친이 펼쳐나갈 미래의 경주시정에 기대가 크다.

기장군 눈부시게 발전시킨 힘 종친회에 쏟는다 기장군수 3선 명예 후 부산회장 된 최현돌 종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를 3선하고 명예로운 퇴임을 앞둔 최현돌 종친이 지난 4월 해운대에서 봉행된 고운시조 춘향제 후 열린 총회에서 부산종친회 회장에 당선됐다.

최현돌 신임 부산종친회 회장은 동국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뒤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을 거쳐 지난 1998년부터 내리 3번 기장군수로 당선된 목민관이다.

그는 기장군수로 12년간 재임하면서 IMF 등 그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신천리 기장군청사로 이전 준공, 기장군 1년 예산 600억에서 3200억으로 증액, 인구 10만 증가라는 업적을 이루었다. 기장군민들은 최현돌 종친의 이러한 업적을 인정하고 3선이라는 지지로 보답했다. 그는 재임 중 참 많은 일을 했다. 열거하기가 숨이 가쁠 정도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인프라 구축이다. 그는 기장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동부근린공원 조성, 새마을공원조성, 기장군보훈회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장문화원, 철마체육시설, 월드컵빌리지와 나비생태공원, 용소 웰빙공원, 장안산업단지, 명례산업단지, 기장군도시관리공단건립, 기장도예촌조성, 5개 읍면의 무료급식소 및 노인복지회관, 기장군노인복지회관, 기장종합사회복지회관이 그의 재임 중 준공됐다.

또 기장별치축제와 철마한우멀치축제를 개최하고 중입자가속기 설치, 부경대학교 수산연구소 유치에 성공했다.

그는 이제 재임기간 중 기장군을 눈부시게 발전시킨 힘을 부산종친회 활성화에 쏟을 기세다. 취임사에서 최현돌 종친은 “이번에 부산 종친회장 취임은 종친회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글로벌화 되어버려 촌각을 다투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잠시 뒤돌아보고 숨 고르는 마음의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꼭 지켜나아가야 할 전통의 근간인 혈연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저는 형제 가족님들께 저의 임기 동안 우리 자신의 뿌리를 찾아 경주 최씨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경산시장 당선자 최병국 종친



세계로 뻗는 역동적 경산 건설에 최선

무소속 후보로 나와 경산시장에 당선된 최병국 종친은 올해 49세로 영남대 법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찰에 투신해 34세에 최연소 경찰서장(군위경찰서)을 기록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당선 뒤 일성으로 화합을 강조했다. “지역 현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으로 알고 사심 없이 일하겠다”며 “선거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도록 화합·소통하

는 자세를 갖추고 지역의 최경환 국회의원과도 함께 손잡고 경산 발전을 일궈내겠다.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시장’ ‘더 큰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치열한 승부 속에서도 3선을 달성한 자치단체장답게 통 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는 화합과 포용에 이어 공약 실천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학 12개가 밀집한 대학도시 경

산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2015년까지 15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대구로 주소를 옮기는 일이 없게도록 지역 중·고교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으로 종합시민운동장 건립과 와촌IC~압량 남북우회국도 건설과 진량4공단 조성 등을 내세웠다. 특히 대구지하철의 경산 연장 공약을 강조했다. 대구지하철 2호선을 하양까지 연장하고 지하철 1호선도 송정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선 추진해 교육도시 경산에 교통혁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국 종친은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문인이기도 하다. 그의 등단은 한동안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병국 경북도 경산시장이 수필로 문단에 등단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문학예술> 2008년 가을호에 ‘남자 같은 여자’와 ‘얼굴에 대한 책임’이란 두 작품으로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얼굴에 대한 책임’은 사람의 얼굴은 태어나면서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든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표현한 글이다.

호남종친회장 유임된 최관수 종친

최관수 종친이 호남 종친회장에 유임됐다. 호남종친회는 지난 4월10일 정기총회를 열고 최관수 현 회장의 유임을 결의했다. 최관수 회장은 “올해 호남종친회가 창립된 지 51년이 되었다. 원거리 종친회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종친회 발전을 위해서는 종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젊은 후계자들의

의 참여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일가들 개개인의 힘보다는 함께 뭉친 지역문종과 종친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종친회는 1959년에 창립돼 올해로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gchoi.co.kr>이다.

自然葬 표창받은 최봉진 진사공파 회장

보건복지부는 11일 친환경 장사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진사공파 최봉진 종친회장에게 공로표창을 수여했다.

경주최씨 진사공파는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에 605㎡(약 183평) 규모의 ‘인덕원(仁德園) 가족공원’을 꾸며 잔디장 방식으로 장지(葬地)를 조성했다. 깊이가 50cm 이상 흙을 파낸 후 흙과 분골을 섞어 묻고 잔디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방식이다. 비석은 세우지 않고, 하나의 ‘명단석’에 이름을 올린다.

처음에는 전통과 예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분분했다. 지난 2000년 설날 최 회장이 처음 잔디장 안(案)을 내놨을 때 종손을 비롯한 문중 어르신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결



국 모두 받아들였고, 2008년 9월 국내 첫 문중단위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받았다.

공원은 평소 마을 회의나 자연학습, 가족소풍 장소로 개방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만명이 다녀갔다.

國民保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다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



광동제약(주) 회장인 최수부 종친은 1963년 광동제약사(주)를 설립한 뒤 50여 년 가까이 국민보건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경영일선을 지켜왔다. 이윤 창출에 앞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자부심과 정제되지 않고 항상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진취적인 정신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광동제약을 일으키고 발전시켜온 그의 경쟁력이었다.

그의 땀과 열성은 광동제약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업체로 성장하게 했고 한국능률협회가 시상하는 제38회 한국경영자상, 한국 CEO연구포럼이 시상하는 한국 CEO 그랑프리를 수상할 정도의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자리 잡게 했다.

경육고 외관원으로 출발한 그는 경육고 판매를 통해 얻은 한방과의 인연을 놓치지 않고 광동제약을 창업했다. 12살 소년시절부터 삶의 무게를 맨몸으로 이겨낸 그의 의지가 꽃피는 순간이었다. 창업 후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그는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가 온 순간에도 한방과 한약제의 우수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회사 구성원 모두가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오늘의 광동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토로한다.

정직과 믿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지양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이가 오늘날의 광동제약의 성공이 두려움을 모르는 도전정신의 결과임도 강조한다. “기회는 제 발로 오는 것이 아니다. 제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고의 목표를 세워야 최선의 결과가 온다”고 말한다.

그의 의지는 젊음이 못지 않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광동제약 구성원 모두가 지난 50년간 해 온 일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을 알고 있다며 현재의 성공을 넘어, 한방의 과학화를 넘어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현재의 성공과 밝은 미래가 그와 광동제약을 믿고 사랑해 준 고객들에

게 있음을 알고 감사한다.

현재 광동제약은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채로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제품으로는 경육고와 광동우황청심원, 광동옥수수수염차, 비타 500 등이 있다. 광동우황청심원은 광동제약의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우황, 사향을 비롯한 30여가지 약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마비 언어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계 질환 치료와 광범위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약이다. 비타 500은 우리나라 건강음료를 대표하는 빅히트상품이며 현재 광동옥수수수염차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광동제약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임직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해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 활동을 펼치고 가산문화재단을 설립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직을 모토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기업인 귀뚜라미 그룹 최진민 회장



귀뚜라미 그룹의 회장인 최진민 종친은 정직을 모토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기업인이다.

1962년 창업 이래 우리 고유의 전통은 돌 난방문화를 바탕으로 국내보일러 업계를 이끌고 있는 귀뚜라미 그룹의 힘은 이러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2006년 보일러 전문 업체 탈피를 선언하고 난방방 전문업체로의 선언을 한 뒤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고 있는 저력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귀뚜라미그룹은 창업 이래 끊임없는 기술투자로 보일러 관련 산업재산권을 500여개나 가지고 있다. 부품국산화율은 98.7%나 되며 한국과 중국 공장에서 생산량은 연간 100만대에 이른다. 세계 최대 규모다.

냉방분야에서도 2003년 센츨리 아산공장 2006년 범양냉방을 인수하며 국내 공조업계의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귀뚜라미 범양냉방을 통해 가정용 에어컨, 시스템에어컨 중앙공조 냉방전문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

또한 2008년에 신성엔지니어링과 2009년 센츨리를 그룹사 가족으로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냉동공조업계 1위 자리를 확보했다.

현재는 각 계열사의 강점인 주력사업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우일렉 에어컨 사업부문의 인력과 설비를 인수하여 가정용 에어컨 부문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냉방전문기업을 넘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귀뚜라미 그룹은 주거 공간 설비의 신개념 유통점인 홈시스를 통하여 보일러, 에어컨, 가구, 벽지, 마루, 가전 등 집에 관한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견적에서부터 시공 및 보증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윈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고

있다.

귀뚜라미그룹은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모범 기업이기도 하다.

이웃의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대를 통하여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는 귀뚜라미복지 재단을 만들어 사회복지지원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장학사업에도 열심이다. 1985년 귀뚜라미 문화재단을 만들어 지난 2004년까지 3만2천여명 학생에게 186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급했다.

침체되는 이공계열의 학살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각 대학의 이공계 연구분야 및 한국공학한림원의 학술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을 지원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未來를 보는 進取的 정신의 경영 CU그룹 최동규 회장



CU그룹 회장인 최동규 종친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미래를 보며 항상 젊게 도전하는 경영인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그는 1990년 석쇄골재 사업을 시작으로 건설업, 건설자재, IT,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해 중견그룹인 'CU그룹'을 이루어 냈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줄 아는 자세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는 경제위기를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인수·합병을 통해 좋은 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활용했다.

그에게는 변칙이 통하지 않는다. 그는 직원들에게 수의계약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한다. 공정한 룰에 의해 공정한 게임을 벌여 돈을 벌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림 없는 자세와 안목이 있으면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룹 이름에 창조·신뢰·협조(3C)와

일류(1U)를 지향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CU그룹은 올해에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인 건설과 전자, 공영을 중심으로 지난해 극심한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2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CU그룹은 올해에는 미래부문과 틈새산업의 적극 활용을 통해 500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매출액 2조원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이미 세계 곳곳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계무대로의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그의 그룹 성장의 확신에는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전망이 포함돼 있다.

CU그룹은 새로운 성장동력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동규 회장은 “녹색성장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분야는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CU그룹 또한 제2의 도약을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CU전자는 이미 태양광 모듈 생산 및 보급사업에 투자를 해왔고, 금년 2월에는 50억 규모의 모듈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CU그룹의 진취적인 경영전략은 정부의 지구 온난화, 유가급상승 문제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킬 계획과 맞물려 호기를 타고 있다.

현재 CU그룹은 기존의 태양광사업을 기반으로 폐자원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를 이해 이미 그룹 내 NRE(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도 적극 영입하고 있다.

최동규 회장은 기업의 사회봉사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신생그룹의 앞으로 이미지에 걸맞은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國學의 첫門을 연 孤雲 始祖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운 시조 영정.

신라 경문왕 8년(서기 868년, 戊子) 변역을 극하던 신라 천년의 사직(社稷)도 어느덧 황혼으로 접어드는 무렵, 소년 최치원은 청운의 꿈을 안고 당(唐) 나라 유학의 길에 오른다. 열두 살의 어린 나이였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서 당나라 수도까지 수륙으로 몇 만 리, 그야말로 아득한 노정이었다. 우선 서라벌에서 항구로 나와 배를 타기로 했다. 당에서 온 장삿배(商船)였을까, 아니면 큰 나라의 문물(文物)을 실으러 가는 신라의 배였을까.

그곳까지 따라온 아버지 견일(肩逸)이 배에 오르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 나라에 가거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십 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 하지 마라. 나도 아들을 두었다 하지 않을 터이다. 가서 부디 부지런히 공부하거라.”

소년 최치원은 뭐라 대답하였을까.

“아버님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겨 두겠습니다. 당나라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기어코 십 년 안에 과거 급제를 하고 말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굳게 맹서를 했는지 모른다. 그 당시 신라에서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많이 보내고 있었다. 요즘 말로 치면 국비(國費) 유학생도 있고, 사비(私費) 유학생도 있었다.

국비 유학생은 숙위학생(宿衛學生)이라 했는데, 선덕여왕(善德女王) 9년(서기 640년)부터 시작되었다. 신라의 귀족층 자제들을 유학이라는 명분을 붙여 당 나라로 데리고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시키고 머물게

했는데, 다분히 인질(人質)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숙위학생의 숙식 의복 등은 당 나라에서 부담하였는데, 흥려사(興禮寺, 지금의 외무부)에서 이를 관장하였다. 신라 본국에서는 강서비(講書費), 즉 책 사는 돈만 지출했다.

이에 비해 사비 유학생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었고, 그래서 그 수가 많지 못했다. 어쨌거나 신라의 견당유학생(遣唐留學生)은 당 나라에서 모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으며, 또 우수한 재질을 갖추고 있었다. 당에서는 외국인의 벼슬길 진출을 위해 빈공과(賓貢科)란 과거 제도를 설치하고 있었다.

최근 중국은 서기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당 나라 수도 장안(長安)에 유학한 신라인은 2백60여명이고, 그 중 90명이 관리 시험에 합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년 최치원은 아버지의 엄훈(嚴訓)을 잊지 않았다. 늘 가슴 속에 간직하고서 부지런히 학업에 정진했다.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는 후일 술회하고 있었다.

“저는 그 엄격하신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겨 잡시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그 바람을 받들어 뜻을 길렀으니 실로 남보다 몇 곱절이나 더 노력해서 유학 온지 6년 만에 과거에 급제하였던 것입니다.”(《계원필경서(桂苑筆耕序)》)

아버지와와의 약속은 10년이었지만 그는 6년 만에 해내고 말았다. 천재성과 노력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열여덟 살 되던 해(874년, 甲午) 9월 예부시랑

(禮部侍郎) 배찬(裴瓚)이 주시(主試)로 관장한 제과(制科)에 응시해서 단번에 급제를 하고만 것이었다.

신라 청년의 우수성을 대당제국(大唐帝國)에 높이 인식시켜 준 것이었다. 더구나 당의 조정에서는 다음다음 해 겨우 20세가 된 그를 일약 현위(縣尉)로 등용한다.

현위는 한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관으로 영장(令長), 승(丞) 다음으로 높은 고관이었다. 따라서 녹봉(祿俸)도 많았다. 그도 말하고 있다.

“녹(祿)이 후하고 공무(公務)는 한가로워 하루 내 배불리 먹었다.”

사실은 하루 내 배불리 먹고 한가로워 보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공무 틈틈이 지은 글들이 모이자 책으로 엮었는데 무려 다섯 권이나 되었다. 이 책이 <중산복계집(中山覆楛集)>이다.(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현위로 부임한 곳이 선주(宣州) 울수(溇水라고도 한다)로서 중산(中山)도 그 지방 이름이다.

열두 살 어린 나이에 만리(萬里) 이역(異域) 물설고 낯설고 거기에다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가 각고(刻苦) 6년 만에 과거 급제를 하고, 이어 일약 지방 행정관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그 재주와 인품의 뛰어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약관(弱冠)의 외국인인 대제국의 행정관으로 어떤 다스림을 폈는지 자못 궁금하기조차 하다.

그는 서라벌의 사랑부(沙梁部, 혹은 本彼部)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이름은 견일(肩逸)이었다. 성은 최(崔), 이름은 치원(致遠), 자(字)는 고운(孤雲) 혹은 해운(海雲)이라 했고, 호(號)도 또한 고운(孤雲)이라 일컫는다.

<삼국사기(三國史記)>(本傳)에는 “공은 풍채가 아름답고 어릴 적부터 정민하고 학문을 좋아했다”고 적고 있다.

선생은 문성왕 19년(서기 857년, 丁丑)에 탄생했다. 신라 46대 왕인 문성왕(文聖王)은 곧 돌아가고 9월에 왕숙(王叔)되는 현정(稹靖 또는 祐靖, 성은 金氏)이 왕위에 오르는, 말하자면 현안왕(憲安王) 1년에 해당된다.

문성왕(文聖王) 재위 연대에는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노(老) 제국 신라에 이미 쇠망의 조짐이 짙게 나타나고 있었다.

나라의 상하에 항락과 안일의 풍조가 널리 퍼지고 있었고 왕실 측근의 야심가들은 저마다 왕위를 노려 거침없이 반란을 일으키곤 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위엄이 땅에 떨어져 지방 호족(豪族)이 예사로이 왕권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 중 가장 위세를 떨친 것이 장보고(張保皋)로 그는 뛰어난 용맹과 경륜으로 청해(淸海, 莞島)에 진(鎭)을 설치하고 이른바 해상 왕국(海上王國)의 웅지(雄志)를 불태웠다. 드디어는 중앙 정부에 세력

을 뻗쳐 왕위 계승 다툼에 개입했고 반란도 일으키는 등 크게 위력을 발휘했다.

문성왕에 의해 진해장군(鎭海將軍)의 칭호를 받아 일본·당(唐)과의 활발한 무역을 펴는 한편, 중앙에 더욱 세력을 부식했지만 종내 왕이 파견한 자객의 손에 죽고 말았고, 해상 왕국의 꿈도 사라지고 말았다.

왕위를 둘러싼 잦은 정쟁과 반란, 속으로 굶아 가는 항락과 안일의 병폐, 이와 더불어 급속히 이반(離叛)되어 가는 민심은 결국 천 년을 헤아리는 통일 제국이 사양의 길로 들어섰다는 예고이기도 했다.

이런 말기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선생은 청운의 대망을 품고 당으로 유학을 떠났던 것이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대제국(大帝國)을 건설한 당(唐)도 그 무렵 역시 흥성의 고비를 넘기고 있었지만, 의연히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처하기에 족했다.

선생의 가문인 최씨(崔氏)는 신라 6성(姓)의 하나로 진골(眞骨, 王族) 다음가는 육두품(六頭品)이었고, 상위 신분 계급에 속해 있었다. 수도 경주의 사랑부(沙梁部)를 중심으로 세거(世居)하면서 명문을 이루었던 것이다.

특히 신라 말기에 일대삼척(一代三崔)라 일컫는 영재들을 배출했으니 세분이 모두 도당(渡唐) 유학생이었다. 일대삼척란 선생(致遠)과 승우(承祐) 인연(仁慮)을 말하는 것으로 승우는 진성여왕(眞聖女王) 4년(서기 890년) 당으로 건너가 국학(國學)에서 3년간 공부했고 예부시랑(禮部侍郎) 양섭(楊涉)이 고시관(考試官)이 된 빈공과에 급제했다. 문명(文名)을 날려 문집으로 <호본집(叫本集)>을 남겼다고 한다. 인연은 선생의 종제(從弟)로 18세에 당에 유학해서 급제하고 귀국 후에는 여러 벼슬을 지냈으며, 뒤에 고려에 입사(入仕)해서 태자사부(太子師傅)가 되고 문한(文翰)을 위임받았다. 글씨에도 뛰어났었다.

선생의 아버님 견일도 상당한 인물이었다. 모양으로 선생이 찬(撰)한 숭복사(崇福寺) 비문(碑文)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 있다.

“경력(慶曆, 定康王 元年) 병오년(丙午年) 봄에 하신(下臣)을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예(禮)에 이르지 아니했더냐, 명(銘)이란 스스로 이름함이니 그 선조의 덕을 칭송해서 후세에 밝게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효자 효손의 마음이라 했느니라. 선조(先朝)에서 절을 이룩할 처음에, 큰 서원(誓願)을 발하셨는데 김순행(金純行)과 너의 아버지 견일이 일찍이 이에 종사했었다. 명이 지어지면 나와 너 둘이 함께 효심을 이루게 되는 터이니 그대는 마땅히 명을 짓도록 하라.”

엄부(嚴父)의 당부(當부)를 지켜 이역에서 급제를 하고, 스무살 젊

은 나이에 대당제국 선주(宣州)의 율수현위에 임명되었던 선생은 이듬해 겨울 사직했다. 고변(高駢)에게 올린 편지에 “전년 겨울 현위를 그만두고 공사과(宏詞科)에 응시할 것을 바라산 속에 들 결심을 해서 잠시 은퇴하였으며, 학문이 바다에 이르기를 기약해서 다시 스스로 갈고 닦았다”고 한 것을 보면 새로운 도약을 기해 한 번 더 공부에 정진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녹봉이 남은 것이 없고 공부할 양식이 모자라서” 다시 관료로 나설 것을 모색했다.

때마침 황소(黃巢)의 반란군이 크게 군력(軍力)을 떨쳐서 수도 장안을 함락시키기에 이르렀고, 당황한 조정에서는 사천절도사(四川節度使) 고변을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으로 삼아 관군의 총지휘를 위임했다.

고변은 평소 선생의 인격과 문명(文名)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중책을 맡게 되자 선생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초빙해서 서기의 책임을 맡겼다.

이후 4년간 선생은 군막(軍幕)에서 필봉(筆鋒)으로 적의 예기(銳氣)를 꺾게 된다. 천하의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황소의 난을 말하자면 그 시대적 배경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당은 중국 대륙에 성립된 통일 제국으로는 한(漢)에 이어 두 번째로 흥성을 극한 나라였다.(서기 618년 건국) 지역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한을 훨씬 능가했고, 개방적인 문화정책으로 해서 세계적임을 지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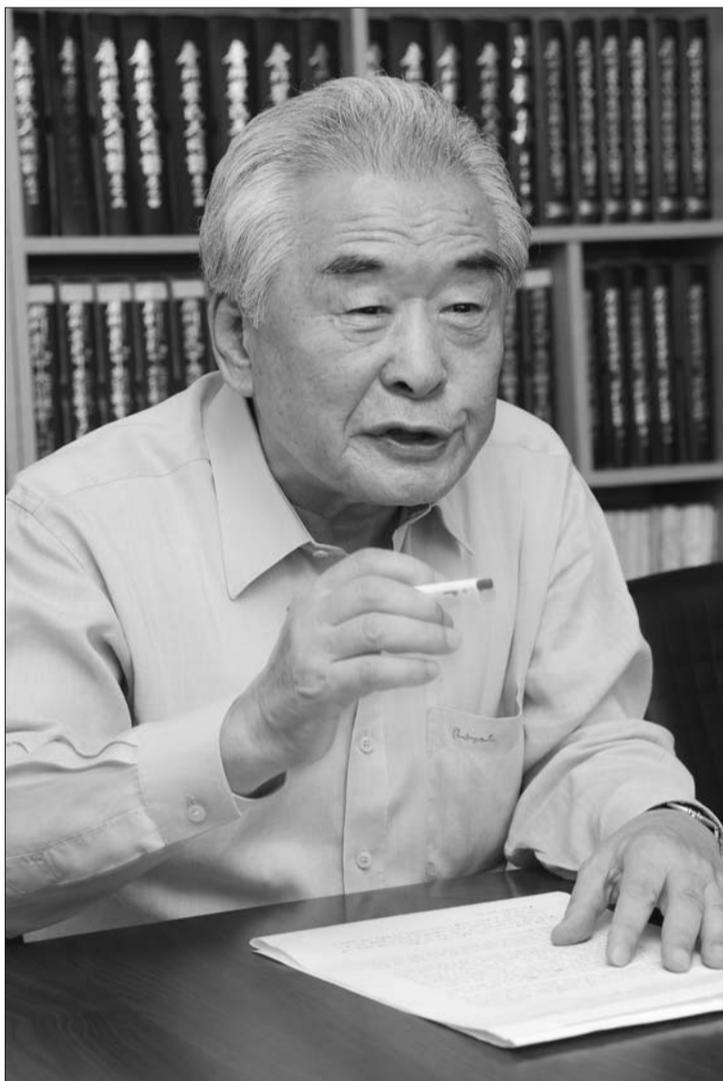
특히 2대 태종(太宗)이 이룩한 정관(貞觀)의 치(治)와 6대 현종(玄宗)에 의한 개원(開元)의 치세(治世)는 문화의 꽃이 만개한 태평성세(太平盛世)로 전성기를 이루었다. 인근 각국에서 문물 제도, 학술 사상을 배우려는 유학생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고, 당에서는 이들에게도 등용의 문을 열어 주어 빈공과(賓貢科)란 과거제도를 설치해서 외국인 인재들을 뽑아 관료에 나서게 했다.

원래 천하대세란 흥(興)이 있으면 쇠(衰)가 있는 법. 미증유의 대제국 당(唐)도 치세(治世)를 거치면서 술한 모순과 병폐가 미여져 나와 드디어는 난세(亂世)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현종 때의 안록산(安祿山)의 난을 발단으로 해서(서기 755년), 구보의 난(859년), 방훈(龐勳)의 난(868년)이 잇달아 일어나 국운은 쇠락을 맞이하고 있었다. 흥성의 고비를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잦은 반란에도 불구하고 당 제국은 의연히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그 자리를 누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대대적인 농민 반란이 터지고 말았다. 황소의 난이 바로 그것이다. 崔根德

富의 사회적 책임질 줄 아는 최 부잣집 역시 孤雲의 후손

- 胃孫 최염 경주 최씨중앙종친회 명예 회장을 만나다 -



우리나라 신팔현의 한 분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녀석한 그늘 아래 부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한 최 부잣집의 胃孫인 최염 씨를 2009년 7월23일 천도교 중앙회관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현재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여든 가까운 나이에도 꼳꼳하고 반듯한 인상이다. 그는 20대 후반 감사원의 전신(前身)인 심계원에서 근무했고, 1960년대 초반에는 영남대 재단에서 일했다. 10여년전까지 의료법인의 이사를 지냈다. 최 부자 가문은 1대 최진립(崔震立·1568~1636)부터 12대 최준(崔浚·1884~1970) 선생까지 12대를 가리킨다. 최 부잣집의 부는 최염씨의 조부인 최준 선생이 해방 직후인 1947년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대구대학(현 영남대)과 계림학숙을 세우며 막을 내렸다. 일제치하에서 백산상회를 운영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최준 선생은 백범 김구 선생이 극찬을 했던 우리 근대사에 숨겨진 인물이다. 최염씨에게 조부인 최준 선생에 관해 물었다.

▶최준 선생은 12대를 이어왔던 경주 최 부잣집의 미덕이 응축돼 있는 듯 한 분입니다. 그분이 계셔 오늘날 최 부잣집의 바른 부의 축적과 유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직접 보고 들으셨던 최준 선생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의 부는 사실상 1918년 조부께서 백산상회 대표로 취임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백산상회를 세우신 백산 선생은 재산이 3백석에 불과해 백산상회를 세우실 때 할아버님께 도움을 청했고 할아버님은 백산상회가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임을 알면서도 흔쾌히 응해주셨지요. 정식이름이 백산무역 주식회사인 백산상회 발기인 대회는 우리 집에서 열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백산상회의 수익보다 많은 금액이 독립자금으로 제공됐고 당연히 10년 만에 파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염씨는 담담하게 그의 조부인 최준 선생이 백산상회의 대표(취체역 사장)를 맡은 경위와 이로 인해 3백년 쌓아온 부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을 이야기 한다.

“당시 동양척식회사와 쌍벽으로 식민지 수탈의 대표적 기관이었던 식산은행 즉 오늘날의 산업은행이 백산상회의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대출 때마다 반드시 할아버님의 개인보증을 요구했어요. 백산상회가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적자가 반드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독립자

금을 우리 집 재산으로 마련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지요. 회사가 파산되고 나니 부채가 130만엔에 달했다고 해요. 우리 집 재산을 다 팔아도 못 갚을 금액이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최염씨의 말은 이어진다. “그런데 식산은행에서 채무를 분할 납부하도록 해주었어요. 그나마 집이라도 지킨 것은 일제의 이러한 회유정책 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우리 집터에 일제가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을 거부했어요. 사실 이미 우리 집이 아니라 식산은행에 처분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또한 당시 식산은행 두취 아리가(頭取 有賀)의 집요한 충추원참의 승낙을 끝내 거절하였기에 오늘날 독립유공자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남은 재산을 모두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학에 기부하였습니다.”

최준 선생의 거부로 경주박물관은 다른 곳에 지어졌고 오늘날 관광명소가 된 최 부잣집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다.

최준 선생을 있게 한 집안의 전통과 가훈에 대해 물었다.

▶최준 선생 같은 분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수백년을 이어온 집안의 전통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어려웠던 식민지 시절에도 최 부잣집이 명망을 이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 부잣집 12대를 이어오는 대표적인 가르침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육훈과 육연의 가르침을 듣고 쓰며 자랐습니다. 육훈은 흥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1년에 1만석 이상의 재물을 불리지 마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시집 온 며느리들에게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등입니다. 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육연은 자처초연(自處超然·스스로 초연하게 지내라), 대인애연(對人靄然·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라), 무사징연(無事澄然·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게 가져라), 유사감연(有事敢然·일을 당하면 용감하게 대처하라), 득의담연(得意淡然·성공해도 경계망동을 삼가라), 실의태연(失意泰然·실패했을 때도 태연히 행동하라)입니다. 儒賢이셨던 고운 최치원 선생의 가문답게 유교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것이었지요.”

최염씨는 3백년이 넘도록 이러한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로 최 부잣집 12대를 있게 한 최진립 장군의 의기를 강조했다. 최진립 장군은 병자호

란이 일어나자 69세의 노령임에도 근왕병을 이끌고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신 분이요.

“최 부잣집의 명성은 69세에 장렬하게 순국하신 진자 립자 쓰시는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가능합니다. 고회를 목전에 둔 나이에 불구하고 나라에 위기가 생겼을 때 장렬하게 전사하신 의기도 의기지만 같이 순국한 노비들의 제사를 같이 지내도록 하신 배려는 당시로서는 대단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지역의 몇몇 가문은 종의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우리 집과 교류를 꺼려할 정도였다고 해요. 저도 겨울에 마루에서 지내던 두 분 충복의 제사를 덜덜 떨며 지내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무척 싫었어요.” 최염씨가 씩스로운 듯 웃으며 말했다.

▶중국 양주시가 경주시와 교류협정을 체결할 정도로 고운 선생의 음덕이 한중우호관계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주최씨 중앙종친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에서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기념관 건립을 허가해 준 것이 지난 2004년입니다만 지난 2001년부터 경주 최씨 중앙종친회는 중국을 방문해 추모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양주시와 기념관 건립을 위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당시 양주 부시장인 장후보(張厚寶)씨가 협의를 위해 종친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당시시장, 양주시장 등이 수없이 왕래하였습니다. 기념관 착공은 2006년에 있었는데 제가 직접 착공식에 가서 각계의 성금 10만불을 전달하기도 했지요. 준공식은 다음 해인 2007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안분들만 아니라 백상승 경주시장 등 고운 선생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 추모단은 양주시의 준공식이 끝난 후 별도의 추모 행사를

를 가졌습니다. 당시 양주시는 10월15일을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일을 최치원의 날로 명명하고 한중수교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환대해 주었습니다.”

최염씨의 말이 이어진다. “지난해에도 양주를 방문해 중국측 인사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추계 제향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에도 10월에 양주를 방문해 추모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부터 계속해 왔으니 8년 동안 쉬 없이 이어지고 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중국을 찾아가 고운 선생을 추모한 것입니다. 고운 선생은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에 까지 그 이름을 알리신 위대한 분입니다. 전국 곳곳에 그분의 자취가 남아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 선생의 높은 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늘은 근대까지도 크고 깊게 뿌리고 있습니다. 천도교를 창시하신 수운 최재우 선생도 고운 선생의 직계 후손이십니다.”

최염씨는 성균관 원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18현 중 한분을 배출한 명문가이자 근래까지도 유교적 가르침에 입각해 부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준 집안의 종손으로 그가 유림의 원로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유교사상의 가치와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유교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유교사상이 필요한 이유와 평소 후손들에게 즐겨 들려주시는 유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충의로 목숨을 가볍게 여기신 분이 진자 립자 쓰시는 할아버님 이었고 고운 할아버님은 중국에서의 출세를 거부하고 혼란스러운 조국을 바로잡기 위해 귀국 하셨습니다. 우리시대에도 이러한 충의 정신이 절실합니다. 후손들에게도 조상들의 이러한 정신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경주 최부잣집 종가.